

공사계약·운영 예산 입주자대표-주민 잇단 갈등

이웃사촌 옛말... 편 갈리는 아파트

광주아파트 600개 자치위 가운데 100곳 송사

“마치 일가처럼 오순도순 지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모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주민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12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부터 5년째 아파트 운영과 관련 고소·고발에 맞고 소까지 난무하고 있다. 소송과 연루된 주민만 20여명에 이른다.

엘리베이터 보수건에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예산, 관리사무소 운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주민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2차례나 고소하기도 했다.

한 동짜리인 이 아파트가 원래 이

랬던 것은 아니다. 아파트가 건립된 1980년대 후반 입주해 20년 넘게 아파트에 살았다는 주민 A(59)씨는 “10여 년 전부터 일인데 말 잘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B(70)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건축 관련 직장에 근무했던 B씨가 공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문제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반목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급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수·관리 등을 놓고 주민들이 편을 나눠 맞고소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자를

상대로 진정한 내용은 다양하다. 아파트 보수·관리 과정에선 “관리규약을 어겼다”며 탄원하고, 말씨름이 벌어져 시비가 되는 경우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B씨가 고소를 해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몇 번이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B씨가 고발하는 바람에 벌금 등의 처벌을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 관리소장과 일부 주민들은 B씨 등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소수의 관리보호와 참여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하

다보면 문제점이 보이고, 질차상 문제가 있어 나서서 고치려고 했을 뿐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는 비단 이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다.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치관리 아파트 600여 곳 중 100곳 이상에서 이 같은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 모두 공사계약이나 운영 예산을 두고 빚어진 갈등 탓이다.

광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기획회 회장은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자치문화에서 일부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기 살림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와 서로 돕는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유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 소속 보육교사 1500여명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문예회관에서 ‘영유아 보육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영유아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을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단속 피하려 야간 냉동탑차 이용 김 양식장 염산 1만1000ℓ 공급

완도해경, 판매업자 등 검거

완도해양경찰은 25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냉동탑차를 이용해

김 양식장에 염산 1만1000ℓ를 공급한 혐의로 무등록 판매업자 A씨(43세)와 운송업자 B씨(57세)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김양식업자 C씨 등의 주문을 받아 울산 소재 제조업체에서 염산 1만1000ℓ(550통)를 매입, 운송업자인 B씨를 통해 해남 모 선착장으로 운송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 일반 화물 트럭으로 염산을 옮겼으나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냉동탑차로 위장, 야간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은 일부 양식업자들 사이에서 잡대 제거 등을 목적으로 염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염산 제조업체, 공급처, 판매처, 구입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경은 올 들어 무기산 등 유해약품 보관 등의 혐의로 양식업자 11명을 검거하고 무기산 817통(1만6340ℓ)을 압수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유태명 구청장 구속, 동구청 표정

“설마 했는데...” 공직사회 뒤숭숭

총장로 아케이드 등 현안사업 차질 우려

유태명(68) 구청장의 구속이라는 비상 사태에 처한 광주시 동구는 앞으로 적잖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3선 단체장’으로 10년째 구정을 이끌고 있는 유청장의 공백은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25일 구청장의 구속 소식을 접한 동구의 한 공무원은 “상당수 직원들이 청장의 구속을 예상하면서도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엄청난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급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청장은 따라서 지난 23일 구속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길게는 20일 동안 이른바 ‘육중 결재’가 가능하다. 또 기소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구급 상태를 벗어날 경우 구청장의 권한을 수행할

수도 있다. 기소된 뒤에도 계속 구급상태가 지속되면 그 시점부터 구청장의 업무는 김효성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청장의 구속으로 동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청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총장로 아케이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은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당장 49억원의 국비가 이미 확보된 총장로 아케이드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1차 시범구간 설치에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찬반양론이 팽팽해 단체장의 강한 의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동구청 내부의 분석이다.

LH에서 땅만 매입한 용산지구와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선교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전동시장 현대화사업,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의료특구 조성사업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동구청의 한 간부는 “구청장 부재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주요 현안은 서면과 면담을 통해 구청장과 협의할 방침”이라며 “구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30) 김장동



선종구 하이마트회장 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선 회장이 회사 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편의점서 같이입을 속웃 출처

○일정한 직업도 없이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20대가 편의점에서 같이입을 속웃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지난날 28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정모(38)씨의 편의점에서 자신이 입을 5만원 어치의 남성용 속웃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나이에 아무런 의욕 없이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남의 물건을 훔쳐서야 되겠느냐”며 훈계.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마트폰 싸게 판다” 속여 1100만원 챙겨

북부경찰, 1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각종 스마트폰을 값싸게 판매했다고 속여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조모(17·무주)군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군은 지난 1월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광주 지역 속박업소 등지에서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여·39)씨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27회에 걸쳐 모두 114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조군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9개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실시간 위치 추적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교생 35명 집단 실사

김제서... 진상조사 나서

김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5명이 집단 실사 증세를 보인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김제시 지원교육청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이 학교 전체 학생 658명 가운데 35명이 실사, 복통, 구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호남최대 원목가구 Sale

쇼핑몰 hong79.com(홍친구 닷컴)

원목식탁 30종류

거실 TV장 20종류

침실원목&모던침대 20종류

친환경 원목가구 셀러, 인까사, 광주대리점 까사또 한국총판
신혼가구에서 이태리가구 까지 원목가구만 200평 대형매장

hong79.com
홍스페이스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

OPEN

오른기념 드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호도선물로 증정합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한고객만의 혜택
제주왕복항공요트무료여행권

요트투어 무료이용
제주2박3일 일주여행
삼수일투어 무료이용
렌트카무료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영업사원 및 딜러 대모집
·여행 및 레저 사업부 0명 ·기업 특판 유통사업부 0명
(주)해브국제무역 / 하든여행사 광주점